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8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3월 8일 (음력 2월 2일) 금요일

## 광주 예비출마자들 '포럼·강연정치' 시동

총선 1년 앞으로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광주지역 예비 출마자들이 '포럼·강연정치'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7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위원장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포럼 '광주의 빛'을 창립한다.

이날 창립식에서 이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한다.

지난 2016년 4·13총선에 출마한 이 위원

현역보다 얼굴 알리기 힘든 후보 포럼·강연 활용

예비후보 전문성·대중성 등 존재감 확대에 도움

장은 국민의당 김동철 후보와 경쟁 끝에 낙선했다.

광주 북갑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조 오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통기획관도 강연정치로 지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조 기획관은 지난 달 11일 광주시공무원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광주에서 광주, 전남, 전북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예산 반영의 연관성 등을 설명하는 강연을 한다.

광주 서구출마 예정인 이남재 시사평론가는 공중파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과 라디오 MC로 출연하며 대중성을 높이고 있다.

이 시사평론가는 민주당 광주시당의 정책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매일 정치토론회와 하

승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최선으로 지난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도 이달부터 일반시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월례 조찬포럼인 '더민주 광주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송 의원은 4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오후에 정치문화 향상을 위한 '더민주 광주이카' 데미도 개최한다.

광주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얼굴 알리기가 쉽지 않은 예비 출마자들은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 포럼과 강연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포럼과 강연은 자신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광주지검 "전두환씨

### 11일 형사재판 출석"

사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주 초로 예정된 전 씨의 형사재판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법정등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 씨의 변호인은 또 재판 당일 부인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를 바로 옆에서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 씨의 출석 의사에 따라 검찰도 오는 8일 담당 검사를 서울로 보내 경찰 등과 다양한 혐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법원과 세부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 씨 측 변호팀은 전남 광주지법을 찾아 동선을 둘러보며 경호상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 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오는 3월11일 까지이다. 인지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등 201호 대법정이다.

서은홍 기자



### 농협보성군지부, 조합장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

### 보성경찰·보성선거관리위원회·보성축협 공동으로 '불법 선거' 근절 호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적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농협보성군지부가 7일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했다.

보성경찰서와 보성선거관리위원회, 보성축협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날 행사는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 이어 보성을 5일시

장 일대에서 전단지 배부와 구호 제창 등 가두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보성군지부 등 유관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홍보단은 대형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장 주변을 행진하며 공명선거 계도에 나서기도 했다. 농협보성군지부는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

관과 협의해 선거일 전일까지 공명선거 홍보 5일장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서희수 농협보성군지부장은 "일부 빗나간 후보들이 금품살포와 식사제공,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으로 공명선거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다"며 "보성군에서는 이같은 사례가 없게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군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깨끗한 조합장을 뽑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목은 감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통합의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한국당을 해체하라"며 황 대표에게 시위했다. 황 대표와 한선교 사무총장 등 신인 지도부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을 찾았다. 황 대표는 병명 특에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정신 깊이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황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시저로 이동해 권양숙 여사와 대화를 나눴다. 권씨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제 등 집안 곳곳을 황 대표에게 소개했다.

권씨는 집의 규모가 애매해 둘러볼 것은 없다며 "이방궁이 맞는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넸다. 이명경 유족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경은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호화로운 이방궁'이라고 비판할 때 등장했던 표현이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시스



권양숙



황교안



권양숙

제20회 구례 산수유꽃축제

2019. 3. 16. 토 ~ 3. 24. 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

개막공연행사

- 일시 / 장소 : 2019. 3. 16.(토) 17:30 ~ 19:20 / 주행사장 상설무대
- 내용 : 제20주년 기념 기획테마공연, 인기 가수 '노라조' 공연 등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체험·전시·참여 프로그램

- 공식행사 : 풍년기원제, 개막행사
- 공연행사 : 국가무형문화재 농악한마당, 청춘DJ클라보 음악여행 등
- 체험행사 : 산수유 꽃길따라 봄마중, 산수유떡만들기 체험경연, 영원불변의 하트지 남기기, 코스프레 의상체험 등
- 전시/판매행사 : 농특산물판매장터, 향토음식점, 이야기가 있는 산수유꽃길 등
- 부대행사 : 구례찍고 산수유먹고, 산수유캐릭터 퍼포먼스 등

www.sansuyu.go.kr

주최

구례군 GURYE County

주관

구례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